

영암 4차산업혁명 대비 신규사업 발굴 '올인'

2018년 새로운 시책 핵심사업 보고회

실과소장 읍면장 참여 협업·소통 나서

영암군이 2018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규사업 발굴에 팔을 걷어붙였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 남산실에서 전통 평 군수 주제로 '새로운 시책과 핵심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열린혁신, 인구정책,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책을 집중 발굴했으며, 읍면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건의하는 등 토론 방식으로 보고회를 진행했다.

군정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 39건, 복지행정 26건, 농업행정 19건, 건설행

정 34건, 읍·면 건의사업 11건 등 총 129건이 보고됐다. 이중 4대 핵심발전 전략 산업(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드론·경비행기항공산업, 자동차튜닝산업)과 제57회 전남제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등이 주력사업으로 거론됐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전략 수립 추진 ▲부패 ZERO! 청렴 UP! 클린영암 실현 ▲각종사업 대가 지급 알뜰서비스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주목을 받았다.

복지지원 분야는 ▲경로당 부식비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 ▲



영암군은 최근 군청 남산실에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시책과 핵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군민 생명보호용 응급처치기 설치가 제시됐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는 ▲한국드루트 가요센터(트롯아카데미) 건립 ▲국립공원 월출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승격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가 추진된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상인창업 점포 조성 ▲청년-농촌 상생형 일자리창출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농업·

건설분야에서는 ▲서울농장 조성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가축우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 ▲위험도로 교차로 시설개선 ▲농산어촌개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발굴됐다.

이날 보고회는 예산절감과 종이없는 보고체계를 만들기 위해 PPT를 통해 이뤄졌으며, 실과소장과 읍면장 합동 보고회를 통해 군정에 대한 협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읍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현안사업도 건의받았다.

전동평 군수는 "군민의 건강·안전·복지증진 사업은 치밀하게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읍면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주목! 이사람

고길호 신안 군수는 20일 오전 11시 증도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증도면 노인의 날 및 경로잔치에 참석한다.

이동진 진도 군수는 20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전동평 영암 군수는 20일 오후 2시 영암도서관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대학 영암캠퍼스 개강식에 참석한다.

신안 제5회 전국 섬 등산대회

28일 비금도 선왕산 5km 코스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간직한 신안군 비금도 선왕산에서 제5회 전국 섬 등산대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국 섬 등산대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등산대회는 삼암 주차장에서 출발해 그림산 정상(1.7km) ~ 죽치 우실재(2.4km) ~ 선왕산 정상(3.7km) ~ 하트해변까지 5km 구간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식전행사로 가요와 난타공연이 예정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도해를 내려다보며 등산로를 따라 산행을 하게 된다.

산행 후 부대행사로 시금치 캐기 체험과 막걸리 시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SBS 미니시리즈 '봄의 왈츠' 촬영 지이기도 한 비금도 하트해변은 한국관광협회가 선정한 가고 싶은 해수욕

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한민국 베스트 활영지 55선, MBC와 월간 사람과 산이 공동 기획한 '사람, 산'에도 소개되는 등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면서 연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동우 환경복지과장은 "선왕산은 전국 등산 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다도해의 명산이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전국의 대표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 목교 설치와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 지역을 알리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신안군 홈페이지(www.shinan.go.kr)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접수가 가능하며, 등록한 참가자들에게는 지역 특산품인 천일염 등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진도 꽃게잡이 대풍 어민들 싱글벙글

올해 위판고 658톤 144억 사상 최대 기록

진도 꽃게잡이 어민들이 사상 최대 풍어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진도수협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꽃게 어업이 19일 현재 위판량 658t, 위판액 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말까지 200t, 40억원 이상 올릴 것으로 보여 올해 최종 어획고는 800t대·180억대까지 기대되고 있다.

진도 꽃게 어획량은 2014년 823t·117억원, 2015년 733t·127억원, 2016년 585t·128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

진도는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가 잡히는 꽃게 주산지다.

진도 조도 해역은 냉수대가 발달,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갯바위 모래층이 형성된 최적의 꽃게 서식지로 다른 지역산보다 상품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거래가는 kg당 1만3,000~1만5,000원 선이다. 많이 잡히다 보니 지난



진도 꽃게잡이 어민들이 잡은 꽃게를 옮기고 있다. 진도 꽃게는 19일 현재 위판량 658톤, 위판액 1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해 1만7,000~1만8,000원 선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진도수협 최정태 상무는 "하루 10t에서 많게는 15t까지 잡히는 대풍어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도 해역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해오던 어민 꽃게 방류사업이 이

같은 사상 최대 풍어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도군과 수협은 진도 꽃게를 알리기 위해 오는 21~22일 임회면 서망항 일원에서 제8회 진도 꽃게 축제도 개최한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 화재발생 대비 소방훈련

신안군은 실제 화재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난 17일 군청사에서 목포소방서 연산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신안군청 자위소방대 200여명과 목포소방서 연산119안전센터 소방관 4명,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됐다.

또 신안군 청사 화재발생시 최초 화재 발견자가 따라야 할 신고 절차와 직원 대피·피난 유도, 초기대응 방법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으로 전개됐다.

특히 자위소방대원들은 반발임무 시연을 통해 임무숙지와 실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오늘 훈련은 실제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를 가동해 신속한 초기 진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원들이 일상화되도록 대응해 효율적인 훈련이 됐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 포 010-3272-2765
- 011-632-0323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진도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 본격 추진

진도군이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진도군은 자급률이 100%를 넘는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다른 작물의 생산 확대에 주안점을 두는 '쌀 생산 조정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계자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진도군은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읍면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 중 하나인 '쌀 생산 조정제'를 설명하고 농업인들

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실시했다.

진도군은 농협 관계자와 농업경영인회, 전업농, 쌀 생산자 연합회, 들녘별경영체 대표 등 농업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면서 목표 면적 395ha에 타 작물 재배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 진도군은 콩, 메밀, 귀리 등 '논' 타작물 재배 사업' 목표 면적을 초과한 134ha에 대해 벼 재배 차액 보조금 4억여 원을 지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어두운 밤길 희망 메시지가 동행해요"

해남 가로등 활용 그림자 조명 설치 눈길

"엄마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해남의 어두운 밤길, 가로등 조명이 밝아지면 군민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켜진다. 해남군이 가로등을 이용해 설치한 일명 '그림자 조명'이다.

해남군은 지난 12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5개소의 가로등에 그림자 조명 시설을 설치, 어두운 밤길에 활기를 더하고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띄

우고 있다.

그림자 조명 시설은 프로젝터에 메시지를 찍은 특수필름과 LED조명을 내장해 가로등이 켜지고 동시에 센서가 작동, 가로등 주변 바닥에 메시지를 비춘다.

일부 도서관에서 관광용 등으로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각 장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이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5개소의 가로등에 위로 메시지가 뜨는 그림자 조명 시설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의 설치 장소는 ▲해남고등학교 후문 ▲녹색디자인 거리 썸지공원 입구 ▲문화예술회관 ▲우슬체육공원 수영장 입구 ▲해남공원 등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내고장 소식



영광 출산장려 캠페인

영광군은 지난 18일 영광군보건소 광장에서 임산부와 일반군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두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터미널 인근 5km를 걸으며 풍선과 우산 퍼포먼스로 핑크색 물결의 이색적인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의 미래인 아이를 낳고 기르길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신안교육지원청 역사문화 탐방

신안교육지원청은 최근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신라권 역사문화 탐방'과 도시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탐방단은 불국사, 안압지, 석굴암, 첨성대, 국립박물관 등을 잇따라 둘러보고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했다.

김인선 교육장은 "신안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문화 탐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여순사건 순국경찰관 위령제

여수경찰서는 19일 경찰서 3층 화합마루에서 '제69주기 여순사건 순국경찰관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49년 10월 19일 여순사건 당시, 국가와 민족의 자유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순국경찰관 72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신기선 경찰서장은 추모사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순국 경찰관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장성 아침밥 먹기 캠페인

장성군 보건소는 최근 관내 4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건소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떡과 우유를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침밥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며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전일용 기자